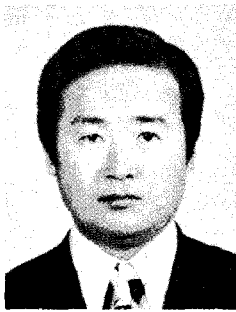


국제사료곡물의 저가시대는 지나고 고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김 동 수
玉城씨비스상사 대표

〈미산옥수수 가격 회복 및 양등〉

*88년 미국 최대 쌀수출국 부상예상

-미국의 국내 쌀재고량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해서 대형 쌀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는 가뭄으로 인해 올해 역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장마철인 지난 6~8월에 주요 쌀생산국인 인도와 태국의 강우량이 평년의 60%에 불과한 강우량 부족으로 이들 지역의 쌀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수입 또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은 쌀이외의 대체용 곡물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대체용 곡물은 소맥, 옥수수 및 대두 등이 될 것이다.

*소련의 곡물작황 불안

-소련의 곡물 주생산단지에는 보통 10월초순이 되면 눈이오기 때문에 9월말까지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 일기불순으로 수확이 지연되어 수

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소련은 금년 수확량을 전년 수준인 2억1천만톤으로, 미국은 500만톤이 감소한 2억500만톤으로 각각 엇갈리게 발표하고 있으나 관측통들은 2억톤이하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어서 동의견이 사실일 경우 전년 대비 1천만톤 이상의 곡물감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서방에서 상당량의 곡물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시 사료용 곡물가격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국의 곡물수출여력부족

-85년도까지 순조로왔던 생산에 힘입어 곡물수출국으로 부상한 아르헨티나가 3년 연속 소맥생산이 감소추세에 있고,

-태국, 남아연방, 호주 또한 세계곡물시장에서의 작황부진 등의 사유로 수출여력이 감퇴되고 있으며,

-86년에 6백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한 중공 역시 내수의 급증으로 가격경쟁력의 상실은 물론 수입국

으로 전환될 전망이 농후하며, -다만, EC제국만이 대맥 및 소맥의 수출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검토〉

1. 소련의 구매량에 따른 곡물가격영향

-소련의 5개년에 걸친 곡물수입량은 아래와 같이 미산옥수수가격을 크게 좌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의 곡물작황불안과 수입증가예상은 미산옥수수가격을 회복 또는 양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소련이 연간 3천만톤이상 곡물수입시 미산옥수수는 100\$대 미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85, '86 소련의 곡물수입량 2천9백5십만톤중 미산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3국인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상당량을 수입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국의 수출여력부족으로 인해 미국에 상당량을 의존할 경우 88년도에는 110\$대 이상의 예측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소련의 곡물 수입량과 미산옥수수 가격동향

구분	미곡물 회계년도	'83~'84	'84~'85	'85~'86	'86~'87	'87~'88
곡물 총 수입량 (백만톤)		32.5	55.5	29.9	*29.5	*31.0
회계년도		'83	'84	'85	'86	'87
년평균미산옥수수시세 (C&F, M/T, \$)		156 ⁴¹	154 ⁰²	129 ⁷⁹	103 ⁵⁸	*110 ¹ ?

주) 1. *는 예상치임

2. 미국곡물의 생산 및 수출예상

-미농무성의 CROP REPORT에 의하면 미산옥수수의 상황은 생산

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발표되었는 바,

-자국내 산업용 및 사료용 등에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산옥수수

1. 미산 옥수수 생산·수요 예측

(자료: 미 농무성 발표)

발표일	'87. 9. 10 발표	'87. 10. 10 발표	비 고
구분			
생 산	7,141 백만 BU	7,139 백만 BU	↓ 2백만 BU
수 요	7,515 "	7,625 "	↑ 110백만 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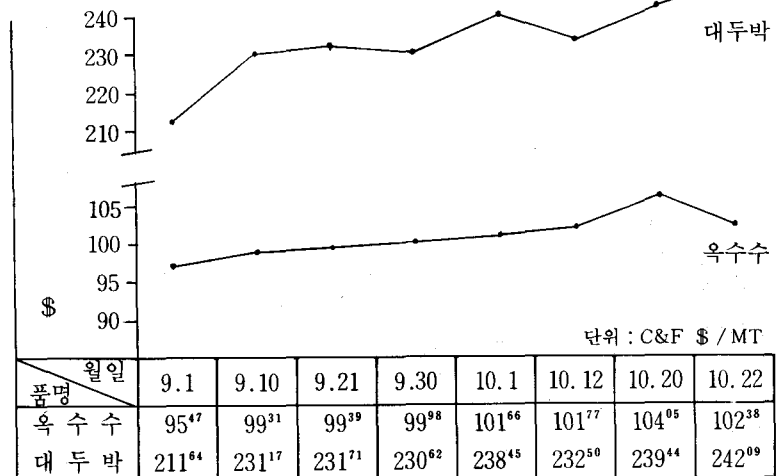
2. 미산 옥수수 수출 예상

(자료: 미 농무성 발표)

옥수수 회계년도 (9월~8월)	'83~'84	'84~'85	'85~'86	'86~'87	'87~'88
	1,901 ^{백만BU}	1,865 "	1,241 "	1,525 "	* 1,600 "

주) *는 예상치

3. 최근 미산옥수수 시세동향 (현물)



Gulf. 88년 1월선적 기준

시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하는바 앞으로 미산옥수수는 강세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3. 기타요인예상

-88년의 11월은 미국대통령선거로써 농민지지기반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은 연속3년 저곡물가격시대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페르시아만의 긴장고조 또한 곡물

국제사료 곡물동향

가격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외 제3국의 수출여력감소로 미산쪽으로 수요증가가 상당량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인도, 중공 등이 미산에 의존할 경우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부원료시세동향〉

*채종박, 캐놀라

중공산부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채종박은 한때 C&F ¼당 77~78 \$까지 하락하였으나 《표》에서와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하락전망보다 강세전망이며 중공의 신곡출하 이후에나 다소 진정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산 캐놀라가 신곡출하시절임에도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식용유인 팜유와 대두유, 채종유의 관계에 있어 팜유가격하락으로 채종유 판매가 부진하여 부산물인 캐놀라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여져 대두박과 함께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소맥피

연간 배합사료공장 소요량의 50% 이상이 수입소맥피에 의존하고 있어 중요관심품목으로 부상한 지 오래이며 '86대비 '87. 1~9월까지 톤당 10~15\$까지 하락하여 C&F 80\$대의 소맥피를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공으로부터 '87구매시점기준(1~9월까지) 40만 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여왔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소맥수확량감소로 아르헨티나에서 지

속적인 저가의 소맥피수입이 원활히 수입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지며 또한 스리랑카의 인종관계에 의한 내전관계로 스리랑카산 소맥피

수입 역시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져 88년도 수입소맥피 수급 및 가격전망은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양기**

〈단위 : C&F \$ / MT〉

품명	산지	월·일	'87				향후추정가격
			7.15	8.15	9.15	10.15	
채종박	중공	공	89~90	91~92	98~99	103~104	110~120
캐놀라	캐나다		145~150	145~150	145~150	160~165	170대
소맥피	아르헨티나		81~82	82~83	82~83	83~84	85~87
	중공(분말, 포장)		75~76	75~78	77~78	77~78	80대
	인도네시아		83~84	83~84	83~84	83~84	85~87
면실박	중공	공	110~115	110~115	120~128	125~130	140대



〈잠깐 생각해 봅시다〉

87년도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한 국사료공업 유사이래 최대인 900만 톤 이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85년도대비(640만톤) 약300만톤의 증가를 보이는 숫자라할 수 있겠다. 약 30%이상의 사료소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데 사료공장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효율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고하니 실제 축산물생산은 더욱 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배합사료수요증가와 축산물 생산증가만큼 축산물소비가 늘었을 것이냐하는 문제이다.

축산물소비는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어느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비자의 소득이 '85대비 '87 약30%이상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느끼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결국은 소비보다 생산이 늘었기 때문에, 즉 과잉생산으로 인한 축산물가격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 지 오래일 것이다.

이제 국제사료곡물가격은 저가시대에서 고가시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료공장은 많지만 팔면 이익이 많던 시대, 양축가 역시 사유수만 많으면 이익이 많던 시대는 향후 1년내에 꼭 그렇지만은 안 더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분수에 맞는 경영이 더욱 바람직한 시점이라 생각된다.